

2 0 2 4 지 구 촌 교 회  
가 정 예 배 순 서 지



VOL.26  
2024 9-10

# 하나님의 지혜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복음성가

지 52장

나의 등 뒤에서

- 13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됴이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 15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이라
- 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 18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 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 21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 22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 23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 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 27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1.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업무는 하루 종일 백성들 사이의 법적 논쟁을 듣고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어려운 재판만 모세가 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지혜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지도자를 세울 때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진실하며, 뇌물과 같은 불로소득을 거부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참된 능력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현재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나 어려움,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망설임 없는 순종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복음성가

지 320  
주께 가오니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1-9

- 0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 02 그들이 르비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 0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 0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 0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 0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0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 0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 0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뽀뽀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신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칩니다. 시내 광야는 넓은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낼 만한 장소였습니다. 장막을 치고 나서 모세는 홀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모세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처음 만났던 장소이며, 사명을 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해주십니다.
2.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목격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4절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는 표현은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해서 옮기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의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여 누렸던 은혜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축복의 말씀 “십계명”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성가

지 416  
주 말씀 향하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1-17

- 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 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 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 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 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09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 11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13 살인하지 말라
- 14 간음하지 말라
- 15 도둑질하지 말라
-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벌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고 풍성한 관계가 세워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2. 십계명은 이름 그대로 열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십계명 말씀 가운데 내가 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종에 관한 규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복음성가

지 271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1-11

- 0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 0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 0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 0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 0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 0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 0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0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 0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중재자로서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선포됩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지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과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노예에 대한 규례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일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등 고대에 노예와 관련된 법률 조항은 보통 마지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노예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무리 부리는 노예 신분이라 해도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라면 노예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각별히 살피야 할 것입니다.
  
2. 보통 노예는 재산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얼마든지 팔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예들의 인권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 노예는 6년을 일하면 7년째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신분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노예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노예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후히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신 15:12-14). 억눌렸던 자가 해방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노예였던 자가 자유의 신분만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역시 다른 이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남다른 마음으로 보살피고, 은혜와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죄의 노예였던 우리 역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얻었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세상에는 여러 이유로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이나, 지구촌 곳곳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복음성가

지 452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12-27

-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 19 지팡이를 쥐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1. 살인은 현재의 법과 질서에 있어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 관점에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생명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보호자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고의로 이웃의 생명을 죽인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할 것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고 도망할 것이며'라는 말씀에 따라 도피성 제도를 두어 피의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아래 최대한의 안전과 최소한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2. 상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든 여러 이유들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입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를 배상하게 했고,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의도치 않게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을 때에는 그 남편의 요구에 따른 보상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주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종의 생명을 결코 해할 수 없게 하였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 피해를 보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5절의 동해보복법과 같은 원칙을 통해 인간의 존귀함에 있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보상을 평등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평화는 세상의 법과 질서 이전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온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지금 직면한 문제들 중에서 응징과 복수가 아닌 배려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나누어 봅시다.

# 왕의 초청



##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복음성가

지 120장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 0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 0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 0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 0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 05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 06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 07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 0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 09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 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 12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무슨 권한으로 가르치고 치료하느냐?, 마 21:23-27)에 대하여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초청에 마땅히 응해야 했지만, 오히려 무관심으로 반응했고, 심지어 남은 자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것이며, 가장 선한 것입니다. 왕의 초청에 우리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 유대 지도자들의 거절이 온 열방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종들에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라고 명합니다. '네거리'는 마을이 끝나고 변두리로 접어드는 길로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합니다. 종들은 만나는 대로 모두를 데려왔고, 혼인 잔치는 손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할 때 사람들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이며 더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갖춰야 할 경건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 백성의 삶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복음성가

지 61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15-22

- 15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 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 22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1.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4가지 의무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납세의 의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금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연합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전까지는 늘 예수님을 향해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고...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려는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칭찬 이후에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덮에 걸리게 하는 질문입니다.

2. 바리새인들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지만,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숨은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18절에는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칭찬으로 예수님을 높이 올린다고 해도 그것에 쉽게 흥분하거나 기분 좋아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대답하며 담대히 맞서십니다. 당시 사용되었던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글이 담겨 있느냐 물으신 뒤 대답을 듣고 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부활 논쟁



##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복음성가

하늘 소망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23-33

- 23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 24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 25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  
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 주고
- 26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 27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 28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  
리이까
-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  
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 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  
으니라
- 31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  
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 33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1. 사두개인들은 귀족적인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룹으로 오직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여기며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바리새인들이 먼저 세금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하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일곱 남자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자가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자녀를 낳아주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예로 들면서 일곱 명의 남자와 결혼한 여인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매우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신앙적인 궁금함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비현실적인 질문으로 성경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고,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2. 사두개인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을 모르는 사두개인을 책망하신 뒤 부활할 때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6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세상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입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 복음성가

지 385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34-46

-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 43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 46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1.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계속되었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구약의 수백 가지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전 인격을 드리다시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2.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 역시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과거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시 110:1)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지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 수준을 능가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설픈 질문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은혜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한 주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한 가지씩 생각해 봅시다.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most of the page width.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대화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질문하고 어떤 대답도 존중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 서약했던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도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항상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  
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하는 **자녀이름**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3~14)  
우리 **자녀이름** 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이름** 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달콤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  
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부모님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애가 넘치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화목함과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 거할 때, 지치고 곤하여 쓰러질 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닛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